

상반기 불교계 결산 - 사찰① 조계사

# 도심포교의 정석을 새롭게 제시하다

올해 상반기에도 불교계에는 많은 이슈와 논란들이 발생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각 사찰들은 저마다 특색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분주했다. 본지에서는 매주 각 사찰들의 상반기 주요 활동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조계사(주지 토진)는 2011년 상반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사찰 중 한 곳이다. 조계사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설립, 선림원 개원, 다양한 봉축행사 실시, 내포 가야산 성역화 동참 등 불자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들을 많이 전달했다.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오체투지 삼보일배는 현재까지도 매주 토요일 마다 진행되고 있다.

조계사는 수행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성역화 불사의 일환으로 삼오 모델을 인수했다. 3월 7일 열린 인수식은 성역화 불사를 위한 사부대중의 노력이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 설립'으로 완성됐음을 알리는 자리였다.

조계사는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신도들의 수행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하 1층은 어린이, 청소년 전용법당으로 사용해 불교계의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상2층은 설법전 및 사무공간, 지상 1층은 신생활 휴게공간과 사찰 음식점으로 활용된다. 사찰 음식점은 저렴한 가격과 담백한 맛으로 문을 열면서부터 많은 대중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조계사가 특색있는 활동으로 도심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7월 1일 초하루 신중기도에서 반야용선을 이운하고 있는 조계사 스님들.

3월 개강한 '선림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전문적인 수행을 원하는 대중들을 위해 마련됐다.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참선을 쉽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선림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별하며 교육도 각 분야별 최고의 강사들이 담당한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종교평화음악회와 다문화가족 결혼식, 동자승 단기 출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동자승 단기 출가에 참여해 화합의 정신을 살

- 숙원 사업 삼오모델 인수 마무리
- 참선 수행 대중화 위한 선림원 개원
- 불교계 사찰 협력의 새 모델 제시
- 하반기에도 특색활동 계획 중

렸다. 조계사는 특히 지방 교구분사와 협력해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에도 동참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지

방과 중앙 교구의 협력은 그동안 불교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찰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 받았다.

내포가야산 성역화는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와 보원사가 2004년부터 민족의 성지를 지키기 위해 교구차원에서 노력해 온 사업이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수덕사와 보원사의 활동이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사 중의 하나인 '문화결사'에 부합하며 동참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3월 경 협력의사를 밝혔다. 조계사와 수덕사는 덕충총림 방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추진준비위를 구성하며 성역화 불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6월 28일에는 수덕사가 매년 실시해오던 '백제의 미소길 걷기' 행사에도 참여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조계사 및 수도권 불자들은 옛 가야사터에서 보원사까지의 5km 구간을 묵묵히 걸으며 가야산에 스며드는 한국 불교의 자취와 소중함을 깨달았다. 특히 그동안 종교 행위가 금지돼 온 서산마애삼존불 앞에서는 최초로 공식 법회까지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반기 중 왕성한 활동을 보인 조계사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4000여 명 참가를 목표로 하안거 행사를 준비 중이며 9월 29일에는 조계사 창건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때, 함평군과 함께하는 국화꽃 축제 등을 준비 중이다. **박기범 기자**

## 주인없는 틈에 암굴 '일제 정비'

수락산 대암사 신도들 담당 관청에 항의

노원구가 수락산 내 암굴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무단 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대암사와 신도들에 따르면 노원구청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일제 정비'라는 이유로 암굴 밖 5평 크기의 가건물을 철거했다. 그러나 신도와 스님들은 장마철에 무리하게 일제 정비를 단행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대암사는 수락산 8부능선 자연암굴에 80세 노스님 두 분이 기

거하고 있는 태고종 등록 암자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6월 28일 철거가 실시돼 스님들은 생필품과 귀중품을 전혀 건지지 못한 상황이다.

대암사 신도들은 노원구가 암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 스님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장마철에 철거를 시도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원구청은 법 절차에 따른 철거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자진 철거를 통보했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렸으나 자진 철거되지 않아 법 절차에 따라 철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혜초 스님의 도전 정신 따라 대장정

동국 혜초원정대 5일 출발 중국-파키스탄-인도까지

동국대 교수·직원·학생 20명으로 결성된 동국대 혜초원정대가 중국-파키스탄-인도에 걸쳐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2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혜초원정대 프로젝트는 동국대 김희욱 총장 취임 이후 건학이념 구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혜초원정대는 올해를 시작으로 4년간 매 여름방학을 이용해 혜초 스님의 발자취를 쫓는다. **조동섭 기자**

대장정의 첫인인 올해는 중국 실크로드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다녀온다. 중국의 시안, 둔황, 투루판, 쿠차, 카슈가르, 타슈쿠르간과 파키스탄의 길기트, 훈자, 라왈핀디, 라호르, 그리고 인도의 델리 등이 주요 목적지로 이들 지역은 혜초 스님의 마지막 여정지로 알려져 있다.

동국대는 "원정대 활동을 통해 >혜초 스님의 도전·탐구·세계정신 습득 >불교정신 이해 및 리더십 함양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 "조계사는 지금 감성경영으로 변화 중"

## 행정국장 성진 스님

"종무원들이 감성적 공감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기계적 분류보다 이것이 더 큰 효율과 화합을 가져옵니다."

행정국장 성진 스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조계사의 노력을 '감성 경영'으로 요약했다. 감성 경영은 주지 토진 스님 취임 후 작년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스님들과 모든 종무원들이 승소에 모여 건강식으로 마련된 식사를 하면서 전체 종무원회의를 진행한다. 여느 종무원회의와 달리 스님과 종무원들이 함께 섞여 앉아 대화를 나눈다. 주지 스님도 한 손에 아이패드를

들고 회의에 참석해 일반 종무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회의 방식도 안건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일반 종무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석에 말없이 앉아 있는 종무원을 주지 스님이 불러내 노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전체 종무원회의에 정해진 틀은 없다. 직무교육도 스토리텔링과 토론식 교육이 진행돼 직원들의 참여와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회의가 거듭 될수록 조계사 대중들은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게 됩니다. 업무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면서 일을 하다보니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있다.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에 마련된 승소도 휴식 개념을 강화할 계획이며 조계사 마당에 설치된 가피, 참선 프로그램 '구미호를 쫓다'도 모두 '감성'이 반영돼 있다.

조계사는 주지 토진 스님의 감성 경영 후 조직 에너지가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오체투지 삼보일배는 수행을 강화시켜 감성 경영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변화는 나부터 달라지겠다는 조계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종단이 추구하는 결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자성과 쇄신을 통한 변화를 종무 행정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계사는 지금 먼저 다가서서 변화하



려고 합니다. 주지 스님도 권위를 벗고 먼저 마음을 열고 화합하려 합니다. 이런 노력이 타인의 마음을 열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 기자



내성천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을 스님이 남중기 내일신문 기자, 박용훈 초록 사진가 등과 함께 찍은 내성천 사진을 조계사 경내 전시관 '모래'에서 7월 30일까지 전시한다. 사진은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내성천 모래밭 풍경사진. 지을 스님은 7월 개막식에서 "내성천은 4대강 사업으로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아름다운 내성천이 생태와 소통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신국판 변형, 304쪽, 울림터, 값 15,000원. 사진가 유동영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간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禪의 황금기

불교적 사유로 웅숭깊은 글을 써온 소설가 정찬주가 선의 황금시대를 연 중국 강호(장시 성과 후난 성)의 대표적 선사들이 주축했던 열두 사찰을 순례했다. 안국선원 수불 선원장 스님과 그 제자 불자들이 함께한 순례에서 순례일행은 천 년의 시공을 넘어 선사들과 조우하며 행복한 구도의 향연을 펼친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이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인 불교야말로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라

수불 스님과 함께 한 중국 강호강호 12 선찰禪刹 순례기

# 행복하는 禪 여행

글 · 정찬주

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수불 스님의 말씀대로 선의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옛선사들의 발자취를 접할 수 있는 21세기 과학시대가 바로 선의 황금기라고 주장한다.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이 책은 4세기에 걸친 선의 황금시대 진면목을 저자의 뛰어난 안목과 수불 스님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보여주며, 순례 일행의 선 체험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만 앓을 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전광석화 같은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수불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저자 정찬주. 수불 스님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조사와 공간의 역사 현장에서 수시로 법석을 펼치며 순례일행의 눈을 열어주었다.



\*신국판 변형, 336쪽, 울림터, 값 15,000원. 사진가 윤명숙의 생생한 사진으로 공간의 역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뜰 앞의 잣나무

초조 달마에서 육조 혜능, 조주, 임계, 운문선사의 벼락같은 깨우침

중국 10대 선사의 삶과 자취를 따라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광둥廣東까지 광활한 중국 대륙 2,000Km를 세 차레 종단한 소설가 정찬주의 혼이 담긴 禪순례 이야기.

현장에서 취재한 새롭고 친절한 禪입문서

